



“연중 제 2 주일”

[요한 1, 29 - 34]

http://www.sjkoreancatholic.org/ 2011.1.16

금주의 강론

[권형배 신부님 강론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이다”(요한 1, 34). 세례자 요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뒤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도 그 전에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분 위에 내리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어린양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봅시다. 사람마다 동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하느님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사람은 더욱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맛을 들어가며 생활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세례 때의 감동과 결심이 점점 식어가다가 마침내는 돌아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생활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 때는 십자가상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가’라고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은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쉽고, 시련과 고통이 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하면서 원망과 한숨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구석구석까지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을 때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라고 구분지어 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나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체험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힘이 되어 줍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세례자 요한처럼 자신있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 역시 그분을 만나 체험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이 전례를 통해 간절히 청해 봅시다. 사실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최주남 예로니모 단장님** 12/28-1/25까지의 여정으로 한국에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습용 음악파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최다니엘 제공**

** Regina Coeli (Iambillotte 곡)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2197>

** 서로 사랑하자 (Let's love each other) 김두원 곡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465>

* ** 내 목자는 사랑의 왕 (The King Of Love My Shepherd Is)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2194>

**모퉁이 돌 (A Chief Corner Stone) —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2195>



그때에 29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30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31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33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34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1분 명상

♡"가까운 사람"♡

- 강준민의 《기쁨의 영성》 중에서



우리가 터득해야 할 사랑의 기술 중 하나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기술입니다. 인생의 큰 기쁨도, 큰 아픔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다가옵니다. 우리를 세우는 사람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람도,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도 모두 가까운데 있습니다.

* 가까운 사람이
매론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됩니다,
상처와 치유, 행복과 불행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보낸 눈빛 하나에 하늘을 날기도 하고
그가 던진 말 한마디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늘 웃으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 14)

금주의명언 “기도는 믿음의 등불을 밝게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다.”